

# 권력의 검열로 오히려 살아남은 책들

서양의 금서 이야기 — 6

주명철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로마시대는 책이 하나의 전리품으로 여겨졌고, 개인 도서관을 중심으로 교양인 집단이 형성됐다. 공공도서관이 국가권력의 기호에 맞춰 장서를 꾸몄다면, 개인 도서관은 오히려 금서를 보유하고 유통시키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 인류의 지적 재산을 보존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들이었던 셈이다.

서양 고전고대의 문명은 1천년 이상 다신교를 바탕으로 발전했다. 최초의 서양인이라 할 그리스 사람들은 신화의 세계에서 살았다. 그러나 기원전 6세기 이후 자연현상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거나, 사회 속에서 훌륭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를 본받는 데 그치지 않고 법체계를 포함해 실용적인 학문을 발전시키면서 더 넓은 세계를 다스렸다. 물론 그리스인과 로마인도 고대의 다른 사람들처럼 잔인하고 교만했으며, 투쟁과 미신을 좋아했다. 그들은 남을 노예로 삼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름대로 훌륭한 문명을 발달시켰고 자유·이성·휴머니즘의 이상을 후세에 물려줬다.

특히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다. 그리스도교는 로마의 황제 숭배교를 거부하면서, 로마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3세기 로마가 정치적 혼란을 겪는 가운데 철학은 영적 위안을 얻는 수단이 됐다. 각별히 신플라톤주의는 고전철학의 이상을 포기하면서 무아경에서 신과 만나기를 고대했다. 이처럼 로마의 정치적 혼란은 그리스도교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가져왔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공인을 받은 뒤, 그리스도교는 이제 전통 종교를 부정할 정도로 세력을 키워나갔고,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다. 그리하여 5세기에는 벌써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가 됐다. 서쪽의 아일랜드부터 동남쪽의 이디오피아까지 넓은 지역의 그리스도교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다.

## 정교한 교리 발전시켜 나간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는 다신교보다 더 정교한 교리를 발전시켰다. 이미 325년 니케아(오늘날 터키의 이즈닉)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가 아닌가를 놓고 로마 제국 내의 1천8백명 주교 가운데 318명이 모여 회의를 한 끝에 아리우스가 불러일으킨 논쟁을 끝마쳤다. 아리우스는 삼위일체설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다.

“하느님이란 태어나지 않는 존재인 동시에 시작도 없는 존재다. 삼위의 두번째 존재인 아들은 태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뜻으로 하느님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아들은 신이라는 본질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가보다는, 다른 피조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창조됐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존재한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직접 이끈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인 성부와 같은 존재임을 공식확인했다. 또한 유대교의 율절(Passover)을 지난 일요일에 부활절을 봉헌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주교에게 서방세계의 로마 주교와 같은 지위를 인

정해줬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 교리상 첫 이단 사상을 퍼뜨린 아리우스는 어찌 됐을까? 319년 알렉산드리아의 사제가 된 뒤 논쟁에 휘말렸던 그는 일리리아(오늘날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지방)로 추방당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을 시로 노래한 《탈레이아(Thaleia)》는 가톨릭 교회가 처음으로 금지한 책이 됐다. 이 작품은 333년에 파괴됐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히에로니무스, 푸아티에의 힐라리우스같은 신학자가 인용하는 구절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아니다. 초기 교리를 채택하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일관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리우스는 333년에 별을 받았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듬해 그를 다시 불러들였다. 아리우스와 그를 추종한 일파는 이제 328년부터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된 아타나시우스를 공격했다. 아타나시우스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알렉산드리아 주교 알렉산더를 수행해 아리우스를 공격했던 사람이다.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파의 공격을 받다가 마침내 335년에 독일의 트리어로 귀양을 떠나야 했다. 그는 338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은 뒤에야 고향이자 임지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가 같은 존재라는 이론(homoousian theory)을 만들어낸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의 교리를 지지하는 황제 때문에 다시금 귀양을 떠난다. 그는 정치상황이 변하는 데 따라서 모두 다섯 번이나 귀양을 갔다.

이상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교 교리가 확고히 자리잡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있다. 그리스도교가 종교로 공인받고 국교로 결정되기까지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한 교리가 여러 번 무효화될 뻔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반대 추론에 의해 깨달을 수 있다. 하기가 초기 그리스도교도는 이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이제 그리스도교가 공인받은 뒤, 사정은 달라졌다. 그리스도교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내부에서 생긴 토론은 중

로마의 개선장군들은  
그리스 책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와 개인장서를  
삼았다. 당대 교양인  
모임의 중심을 이룬 것은  
바로 이 장서로 꾸며진  
개인도서관이었다.  
특히 개인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달리  
금서를 소장,  
우리의 관심을 끈다.



알렉산드리아시 전경

교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기보다, 오히려 그 종교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줬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벌써 몇 가지 원칙을 교리로 채택하지 않았던가?

#### 개인도서관 중심으로 독서행위 이뤄져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전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과정의 책과 독서 이야기를 한번쯤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두루말이(volumen)에서 '코텍스'로 책모양이 바뀐 것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264호 참조) 로마의 세계는 그리스로부터 두루말이 형태의 책과 읽는 기술을 물려받았다. 기원전 3세기 이후 로마에서는 책의 이용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로마 사회가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책이란 거의 언제나 그리스 책이었다. 극작가는 그리스 책에서 영감을 얻고, 우스꽝스러운 요소를 찾았다. 라틴 문학은 그리스 책을 본받아 태어났던 것이다.

로마의 장군은 그리스 책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왔다. 에밀리아누스는 기원전 168년 마케도니아에서, 술라는 기원전 86년 아테네에서, 루쿨루스는 기원전 71년에 미트리다테에게 승리를 거둔 뒤 각각 그리스 책을 가지고 돌아왔다. 개선장군은 전리품을 자기 집에 보관하면서 개인장서로 삼았다. 그것을 중심으로 교양인의 작은 모임이 생겼다.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스키피오 에밀리아누스, 바울 에밀리아누스와 교분을 쌓으면서 그들의 책을 빌려봤다. 1세기 뒤, 키케로는 독재자 술라의 아들인 파우스투스 술라의 장서를 이용한다. 이처럼 개선장군이나 부유한 로마인이 서재를 갖는 일이 늘어났고, 개인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교양인이 모였다.

제정시대는 새로운 단계를 이뤘다. 이때는 식자층이 늘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리스-로마의 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세계에서 글이 그 전의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유통됐다. 공식 비문에서 낙서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비명문 외에도 수많은 글이 돌아다녔다. 깃발, 시나 산문으로 된 소책자와 중상비방문, 글을 담은 메달이나 동전, 글을 쓴 천, 책력, 청원서, 편지, 게다가 행정문서나 군대의 문서, 끝으로 재판관계 문서가 넘칠 지경이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직접이건 간접이건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많지는 않지만, 당시에 돌아다니던 글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 권력의 눈길 피해 개인자격으로 금서 소지해

이처럼 다수가 글을 읽을 줄 알고 수많은 글이 유통되던 세계에서 계속 늘어나는 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썼다. 첫째, 공공도서관을 짓고, 개인 도서관이 증가하는 한편, 애서가를 위한 지침서가 더 많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검열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황제나 각 지방의 명사가 시민을 위해 지어 바쳤던 공공도서관에는 오비디우스 같은 작가의 책이 꽂히지 못했다. 이처럼 권력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 공공도서관에 꽂도록 하고, 싫어하는 책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당대인은 개인 자격으로 오비디우스의 저작을 가졌다. 그 덕택에 그의 저작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공도서관이 검열을 통해 독자의 선택을 이끌어주려고 노력했다 해도, 독자는 사적인 자격으로 공공도서관에서 보존하지 않는 작품이나 어떤 식으로든 검열을 받은 작품을 계속 사들이거나, 빼끼거나, 읽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읽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실상 이때는 이런 작품의 발행부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대였다.●